

광주는 지금 거대한 아파트 공사판



광주 곳곳에 아파트 재개발 공사가 한창이다. 2021~2022년이면 정비구역 사업 19곳이 완료돼 3만2000여 가구가 새로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신규 물량이 쏟아지자보니 미입주·미분양 사태가 우려된다. 아파트로 둘러싸인 광주 도심.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아파트의 공급 대책없는 광주

<1> 아파트만 짓는 광주

광주 곳곳이 아파트 건설 공사판이다. 대부분 재개발·재건축 현장이다. 노후주택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천편일률로 아파트만 지으니 답답하다. "이렇게 마구 지어놓아도 살 사람이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선다. 인구도, 거래도 급격하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아파트는 '프리미엄 아파트'라는 명목으로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높여 비난도 거세

2019년 조대부고 총동창회장 이취임식 및 24차회기 정기총회

- 일 시: 6월 27일(목) 18:30
- 장 소: 라페스타웨딩홀 3층 베누스홀(광주 서구 농성동)
- 이임 총동창회장: 21회 노동일
- 취임 총동창회장: 28회 김광태
- 연락처: (062)224-1461

재개발·재건축에 민간공원 개발까지 천편일률 아파트 지어 3년 내 4만여 가구 쏟아져 ... 2006년 미분양 사태 재현 우려

고 있다. 급기야 '광주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다. 광주지역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이대로 괜찮은 지 실태와 대책을 모색한다.

광주시 남구 월산동 돌고개에는 아파트 재개발이 한창이다. 오는 2021년 9월이면 889가구가 입주한다. 그 곳에서 광주전을 지나면 임동2구역 재개발 현장이다. 2021년 6월 입주를 목표로 654가구가 지어지고 있다. 광주은행 본점 건너편 계림8구역에는 4057가구 규모의 아파트 뼈대가 거의 완성됐다. 그 곳에서 5분 가량 걸으면 계림7구역에서 562가구 규모의 재개발이 진행 중이다. 광주교대 방향으로 조금 이동하면 철거작업이 한창인 현상이 나온다. 계림3구역으로, 930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지어진다. 건너편 북구에는 동신고 앞에 2564가구가 지어지고, 바로 앞 중흥3구역에는 1556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 모든 재개발 지역이 도심 4km 내에 있다. 동구·서구·광산구 등을 합하면 2021~2022년 광주지역에 19곳 3만2582가구가 집입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건설하는 아파트 규모만 1만 가구에 달해 4만 가

구를 훌쩍 넘어선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정비사업은 민간주도 주택재개발 34곳, 주택재건축 16곳 등 총 50곳에서 진행 중이다. 이 중 9곳은 이미 준공을 마쳤고, 5곳은 착공에 들어가 공사가 한창이다. 7곳은 관리처분인가를 마쳐 조만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6곳은 사업시행인가를, 4곳은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했다. 8곳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06년 광산구 수완지구 미분양사태 후폭풍으로 분석된다. 수완지구 미분양이 폭증하면서 집값이 곤두박질하자 건설사들이 아파트 건설을 기피했고, 이후 6~7년간 신규 분양이 끊기다시피했다. 이는 기존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불렀고, 새로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급격하게 끌어올렸다.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아파트 가격은 투기 대상이 됐고, 가격이 살아나자 건설사들은 신규 공급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광주 자치구들도 노후주택 문제 해결과 인구 유입 효과 등을 내세워 주택 재개발·재건축을 무분별하게 인가했다.

곳곳에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짓자는 아파트 규모만 1만 가구에 달해 4만 가

2021~2022년 광주 자치구별 예상 입주물량

자치구	정비구역	예상입주물량
동	6	8943
서	3	3730
남	3	2099
북	6	13078
광산	1	4732
계	19	32582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아파트 거래를 업무로 하는 공인중개사들마저 "이대로 괜찮겠느냐"라며 걱정하는 소리가 나온다.

실제 광주지역 주택매매는 거래 절벽에 가깝다. 지난 5월 광주 주택매매 거래 건수는 1939건으로 전월보다 96건 줄어 2000건 이하로 떨어졌다. 전년동월(2887건) 대비 32.8% 줄었다. 지난달 입주 기간이 단축된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30%가량 입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최근 1~2년새 광주에 아파트 신규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10여년 전 수완지구 미분양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미입주 문제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건설사들은 분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둘러 물량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도시철도 2호선 8월말 착공

총사업비 2조1761억 확정 ... 6월 착공 계획 불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공사가 이르면 8월 말 시작된다. 민선 7기 광주시는 올 상반기 착공을 공언해왔으나 중앙정부와의 협의 등 행정절차가 예상보다 늦게 마무리되는데다, 세계적 이벤트인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올 여름 광주에서 개최되는 점이 '지각 착공'을 불러왔다.

광주 시내를 원형으로 감싸고 운행할 도시철도 2호선 1~3단계 공사가 2022~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마무리되면, 광주는 어느 곳이든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30분이면 오갈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다.

<광주일보 2019년 5월 10일자 1면·관련기사 3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호선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만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마스터스대회 폐막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기공식을 갖고 공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 난관이었던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를 지난 3일 완료했다"며 "총사업비에 이어 국토부의 사업계획 승인도 지난 13일 마무리됨으로써 도시철도 2호선 착공을 위한 모든 행정적 준비가 끝났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 발언만 놓고 보면 착공이 지연된 데는 광주 수영대회 (7월12일~28일), 마스터스대회(8월5일~18일) 개최

로 보이나, 실상은 중앙정부와의 협의 등 행정절차가 늦어졌고 그에 따라 건설공사 업체 선정이 늦어진 때문으로 보인다. 6700억원에 달하는 1단계 공사(시정-광주역 17km) 업체 선정이 8월이나 완료되기 때문이다. 이 시정은 지난달 8일 '민선7기 산업 비전 및 추진전략' 발표 당시 6월 정상 착공을 넘어, 조기 착공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이날은 착공이 지연된데 대해 별도 언급은 없었다.

광주시가 이번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완료한 도시철도 2호선 총사업비는 2조1761억원(국비 1조3057억원, 시비 8704억원)으로 예초 2조579억원과 비교해 1182억원이 증액됐다. 2016년 12월 실시한 기본설계 이후의 실시설계 결과와 물가 및 지가 상승분 등이 반영됐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해 시민들께 혼란을 드린점을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 시장은 이날 유럽 출장 복귀 이후 소집한 간부회의에서 "6월 4일,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던 한 민간 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설 가동이 중지됐고, 해당 쓰레기를 추가로 처리하게 된 공공 음식물자원화시설에도 과부하가 발생해 일부 아파트의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지연돼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으셨다"며 "관련부서는 근본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시진핑 "한반도 평화·번영 기여할 것"

방북 앞두고 北 노동신문 기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방북을 하루 앞둔 19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기고를 통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도록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주석은 이날 노동신문 1면에 실린 '중조선선을 계승하여 시대의 새로운 장을 계속 아로새기자' 제목의 기고문에서 "우리는 조선(북한)측 및 해당측들과 함께 의사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이 이룩되도록 공동으로 추동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위해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측 수교 70주년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방북한다면 "이번 방문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 동지와 조선 동지들과 함께 중조(중북)친선협조관계를 설계하고 전통적인 중조선선의 새로운 장을 아로새기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의 최고지도자가 방북을 앞두고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기고를 통해 관련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가까운 무안에서 출발해요~ 이제 편리하게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푸우~욱~

민고가는 조이투어에서 여름휴가! 떠나세요~!♥

무안 ↔ 후쿠오카 큐슈 최대 도시

매주 월,수,금,일 출발

◆ [2박3일] 399,000원~ / [3박4일] 599,000원~

특가 & 집중모객

- ◆ 후쿠오카 초특가 7/10,12,14,17,19,21 출발 399,000원~
- ◆ 다낭(베트남항공) 6~7월 출발 399,000원!
- ◆ 블라디보스톡(제주항공) 정통특가 2박4일 749,000원~
- ◆ 대만 / 마카오 / 홍콩 499,000원~

무안 ↔ 나트랑(젯스타항공)

7월 28일~10월 9일 (총 10항 출발) *연휴 스케줄 상이

[목요일출발] 4일 / [일요일출발] 5일 699,000원~

무안 ↔ 오이타 살랑~살랑 볼라랄 타고

매주 월,수,금 출발(최소인원 7명 이상 출발보장)

- ◆ [월/수 출발] 오이타 벳부&유후인 3일 399,000원~
- ◆ [금 출발] 벳부&유후인&야나가와 벳놀이 4일 699,000원~

무안 ↔ 몽골 가격인하, 상품질은슈

★6월 15일 ~ 8월 28일 까지(매주 수,토 출발)★

- ◆ [수요일] 4일 1,098,000원~ / [토요일] 5일 1,148,000원~
- ◆ [항공+호텔] 4일 649,000원~ / 5일 699,000원~

무안 ↔ 달랏(비엠텐항공)

7월 24일 ~ 3월 28일 까지(매주 수,토 출발)

[수요일출발] 4일 / [토요일출발] 5일 749,000원~

무안 ↔ 동경 매일출발 일본의 수도 도쿄를 무안에서!

★최저모객인원 7명 출발보장★

- ◆ [2박3일] 동경&하코네 팍착일정 839,000원~
- ◆ [3박4일] 동경&하코네 (디즈니랜드선택관광) 1,080,000원~

무안 ↔ 대만 정기편(제주항공)

매주 월,화,수,목,금,토,일 매일출발 3박4일

- ◆ [노팁/노음선] 스펀,단수이,야류,지우편 699,000원~
- ◆ [고품질/화현] 화현,태로각,지우편,야류 699,000원~

무안 ↔ 다낭(베트남항공&제주항공)

[베트남항공] 매주 화,금출발 / [제주항공] 매일 출발

[다낭&호이안&후에] 399,000원~

무안 ↔ 블라디보스톡(제주항공)

- ◆ [월,수,토요일 출발] 블라디+우수리스크 4일 829,000원~
- ◆ [금요일 출발] 블라디+우수리스크 5일 979,000원~

※모든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 포함사항이 다르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제등다2003-1호
 ※ 공통조건: 여행경비 1인 기준, 여행기보급 가입(여행상품: 1억 원, 국내상품 5천만 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 지역 ※ 상가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 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 혜택 ※ 예약시 계약서(취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 경비(항공료, 기차/기차도 통사료, 선박료,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JOY TOUR